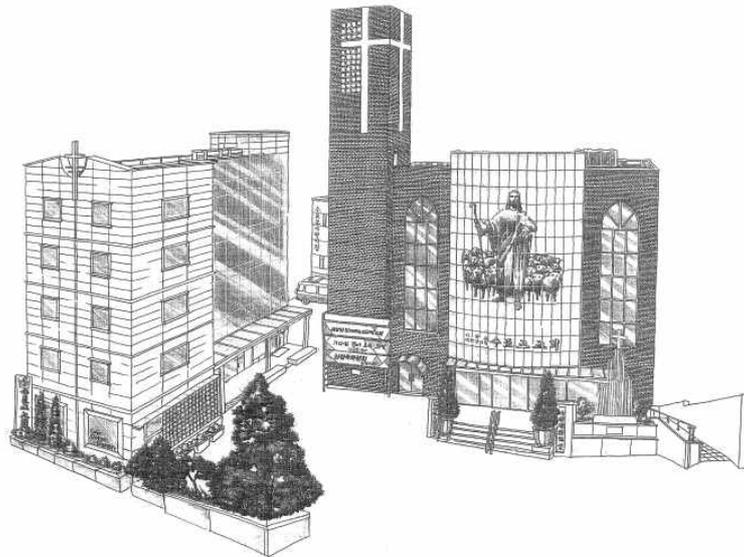


2022년 제14회 수표교포럼

다중 전환 시대, 미래세대가 그리는 교회는?



일시: 2022년 10월 30일(주일) 오후 4시

장소: 수표교교회 예루살렘(유튜브 중계)

주최: 수표교교회

주관: 수표교포럼위원회

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수표교교회

초 대 합 니 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7년부터 수표교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수표교 포럼은 위기와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외침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와 사회를 읽어내는 소명감’, ‘철저한 회개에 기반을 둔 영적 대각성’,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메시지는 그동안 수표교 포럼에서 확인한 우리 신앙의 향기이자 믿음의 전통이었습니다.

올해 수표교포럼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늘어가는 지역격차, 초연결사회의 도래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 변화 속에 교회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별히 미래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초연결 플랫폼사회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났습니다. 인쇄된 지식보다는 하이퍼텍스트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맞춤형 정보를 쌓는데 익숙합니다. 강한 연결은 거부하지만, 스마트하게 널리 접속하는 방법을 알며, 자신의 취향과 선호를 선택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세상에서 개인이 살기 위해서도 공동체를 배려해야 하고, 인간이 살기 위해서도 생태계를 배려해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생태적 구원이 절실해지고, 미래를 헤쳐 나갈 창조성과 적응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이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엮고, 섞고, 뒤집어야 합니다.

미래세대는 어떤 교회를 그릴까요, 그리고 교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복음은 불변이지만, 그 적용은 급변하는 세상 변화에 맞추어야 합니다. 경건한 성경(텍스트) 해석은 심층적 세상(콘텍스트) 이해로,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가능한 교회를 만들고, 코로나19가 드러낸 문명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한국 교회의 내일을 모색하는 포럼을 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소중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22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수표교교회 담임목사 김진홍 드림

“다중 전환 시대, 미래세대가 그리는 교회는?”

프로그램

● 개회사

- 김진홍 목사 (수표교교회 담임)
- 채성기 목사 (오류동교회, 서울남연회 감독)

● 주제발표와 토론

- 사회: 원동광 목사 (수표교교회)
- 주제발표 1: 신학적 전환과 목회적 적용 - 생태와 기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구구원
김은혜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과)
- 주제발표 2: 미래세대가 그리는 교회
김영석 목사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교목)
- 지정논찬:
강대중 권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홍민기 목사 (명지대 자연캠퍼스 교목)
- 자유토론
- 감사 말씀/광고
이재열 권사 (수표교포럼위원회 위원장)
- 강평/축도
김진홍 목사 (수표교교회 담임)

“다중 전환 시대, 미래세대가 그리는 교회?”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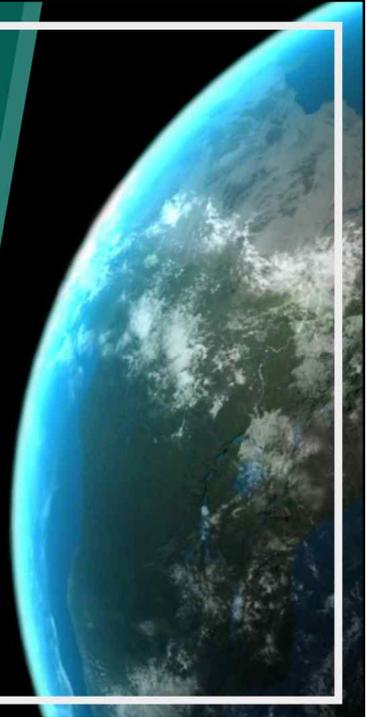
[발제] 신학적 전환과 목회적 적용(김은혜 교수)	5
[발제] 미래세대가 그리는 교회(김영석 목사)	20
[논찬] 강대중 교수	47
[논찬] 홍민기 목사	50

2022 제 14회 수표교 포럼

신학적 전환과 목회적 적용:
생태와 기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구 구원 (Earth Salvation)

김은혜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2022 제 14회 수표교 포럼

목 차 (contents)

- 01 전환의 시대에 팬데믹이 준 신학적 도전과 교회의 응답
-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 신학적 전환 & 목회적 적용 (I, II, III)
- 03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 사랑의 네트워크로서
지구 구원 (The Network of God'Love)

강의에 앞서

핵심 개념

생태, 기술, 물질, 사물 그리고 지구 구원

교회가 응답해야 할 핵심 가치

: 공생 공존 공산 공감 공유 공동선

2022 제 14회 수표교 포럼

디지털 기술, 4차 산업혁명, 포스트휴먼 사회

'신학-기술 공생 목회 네트워크 연구소

(KTTN, Korea Theology and Technology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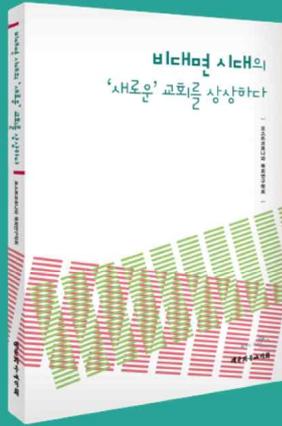
인간기술공생 네트워크 연구소(HTSN) 조직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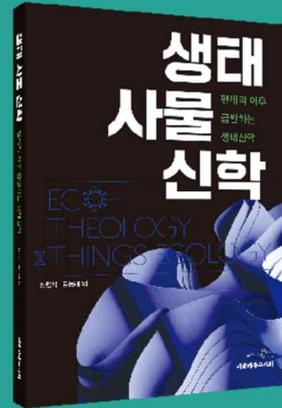
2022 제 14회 수표교 포럼



도서 소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대한기독교서회)



생태사물신학
(대한기독교서회)

01

전환의 시대에
팬데믹이 준
신학적 도전과
교회의 응답

코로나가 덮친
혼돈의 시대에
교회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난다.

작은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신 학

복음
전파

교 회

목 회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전환을 이끄는 시대 정신

생 태

기 술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교회의 근본적인 전환

새로운 방향

생태, 디지털

오늘의 책임

신학적 전환 ①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 오늘 신학 " (Theology of Now)

구원론

창조 신학

오래된 신학 전통은
인간구원을 세상과 자연과의 분리로 생각했다.

그러나
구원은 세계와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몸으로 육화하심으로
지구의 한 부분이 되셨고,
지구의 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더욱 적극적 교회의 응답을 위해
'오늘의 신학'이 중요하다.

- 구원론과 창조신학의 균형
-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책임적인 삶

신학적 전환 ①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시편 24편 1-2절

-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신학적 전환 ①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의 응답과 목회적 적용을 위한
신학적 가치

공존
Coexistence

'공존'의 목회적 적용

-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공존의 제도와 정책 마련
- 교회와 사회의 공존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공존하는 공간 창조
-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역량 증진과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지지

신학적 전환 ②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물질(Mattering)에 대한

새로운 이해:

" 구원론의 확장 "

성육신(Incarnation) 신학

피조된-공동창조자
(Created Co-Creator)

물질화 :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신학적 전환 ②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의 응답과 목회적 적용을 위한 신학적 가치

공생
Symbiosis

'공생'의 목회적 적용

- 물질환경과 함께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 물질과 공동선에 대한 신학적 성찰
- 공생에 대한 영성의 증진 교육훈련 플랫폼을 개발공유
- 강도 만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교회 실천

신학적 전환 ③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기술대상과 사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해:

" 만물 신학 "
(Theology of All Things) "

기 술

디지털 전환

신학적 전환 ③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기술에 대한 신학적 전환:
기술과 인간은 분리되지 않는
관계적 존재이다.

기술을 통한 신학적 전환:
인류의 동반자, 과학과 기술

신학적 전환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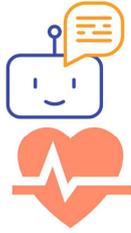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WHY?

**교회는 왜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유해야 하는가?**

" 다음 세대, 그리고 정신과 마음의 문제 "



첨단 기술 시대 속에서 접촉의 의미 : AI와 인간의 교감

우울감 감소 / 심리적 안정



독거노인과 AI로봇과의 동거



디지털 치료제와 챗봇 U-Me

신학적 전환 ③

교회의 응답과 목회적 적용을 위한 신학적 가치

02

성찰과 전환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공산
Sympoiesis

'공산'의 목회적 적용

- 소통과 경청 - 각 세대 간의 대화와 훈련
- 디지털 감수성(DQ)증진을 위한 소양 교육
- 디지털 ESG 신학적 내용과 목회적 프로그램개발

위드 코로나 시대, 신학적 전환을 위한 핵심 개념

1.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2. 인간 중심의 '전통적 구원론'에 대한 반성과
'확장된 구원론'
3. 기술에 대한 신학적 성찰

03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 사랑의 네트워크로서
지구 구원 (The Network of God'Love)

03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접촉하는 모든 관계망이
하나님 사랑의 네트워크이고
잃은 양을 찾아가는 은총의 연결망입니다.

2022 제 14회 수표교 포럼

신학적 전환과 목회적 적용 :
생태와 기술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구 구원 (Earth Salvation)



Thank you

김은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수표교포럼 2022

미래세대가 그리는 교회

김영석 목사 배화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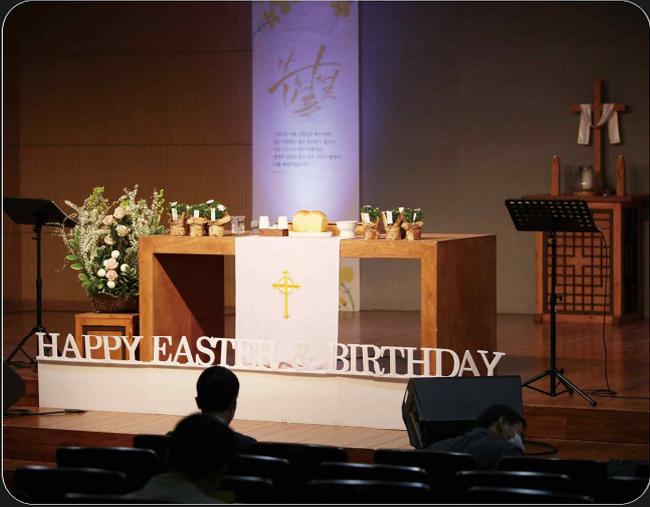
김영석 목사

부천 영성교회 담임 2003-2005

서울 종교교회 부담임 2006-2014

어노인팅 설교목사 2013-현재

배화여자대학교 교목 2015-현재 (대학교회 담당 2016-현재)



대학교에서 20대 학생들을 만나고
대학교회서 30,40대 청장년 만나는 목사의
좌충우돌 분투기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부흥은 목사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나 되지 마라. 만약 목사가 장애가 된다면
혼자서도 교회 무너뜨릴 수 있다."

김기택 목사



"파도는 우리가 만드는데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파도를 타기 위해
훈련하며 준비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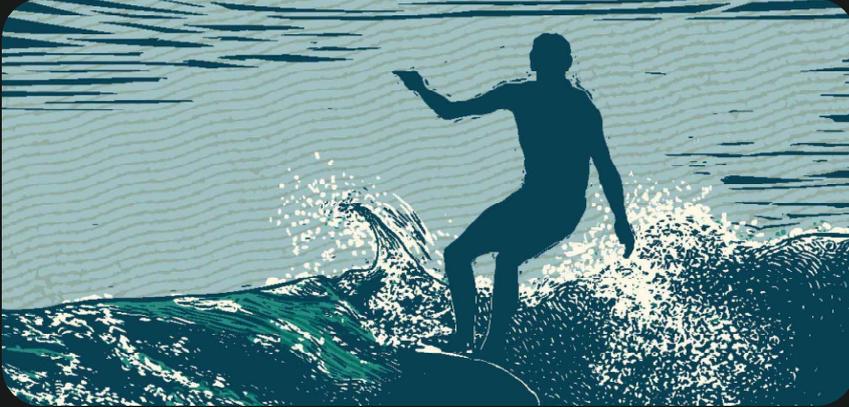
릭 워렌 목사 (Purpose Driven Church 중에서)

웬디우드 목사



그래서 얻은 결론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부흥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허우적 대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일이다.



MZ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_ 사사기 2월 10절

MZ

마이싸이더
기준

실감세대
오감

팔로인
사람

가취관
취향

소피커
소신

MZ

다양함을 추구하고 다름을 존중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新에피쿠로스 세대'

"MZ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성공 43%, 자신의 취미 42%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MZ세대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최초의 세대다."

- Barna Group, [Gen Z]

MZ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눅 9:23

[복음의 정반대편에 선 세대]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자기의 이익보다
위대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지를 요구한다.

MZ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vs** 어디까지 가야할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궁극적 목표를
잊지 않으려고 더 고민해야 한다.

MZ

그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삶의 전환(구원)'을 이루도록(빌2:12) 도와야 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

MZ가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계와 위험'을 깨달아 삶의 전환을 이루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삶의 '기준과 목표'를 재정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누미노제

- 독일의 신학자 R. Otto 의 개념

몰입을 통해 경험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일상 경험을 넘어 낯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몰입하는 종교적 체험이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이다.



경이 - 驚 놀랄 경, 異 다름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

You shall do my **wonder** with this staff. _ 출애굽기 4장 17절

우리가 해야 할 일, 지팡이 준비!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How?

1. 불편함이 없는 교회
2.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3. 균형이 있는 교회
4. 복음이 있는 교회

1. 불편함이 없는 교회

MZ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한다면
그들이 불편해 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불편한 요소가 남아있다면
몰입과 경이 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그저 필요없는 부분을
깎아냈을 뿐이다.

_ 미켈란젤로



기본으로 이기다, 무인양품

마쓰이 타다이스 지음 · 박재이 옮김

無印良品

38억 엔 적자 회사를
최강 기업으로 만든
회장의 경영 수첩

무인양품무인양

"고레데 주분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창조 **아그** _ 쫓아낸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_ 창세기 1장 1절

*

혼돈과 무질서를 쫓아내고
질서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해 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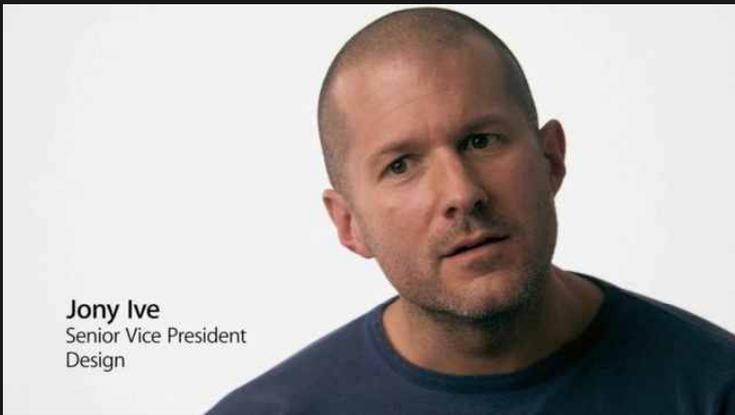
1. 조명이 너무 밝아요
2. 제단이 어수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3. 마이크 소리가 울려서 집중이 어려워요.
4. 사람은 적은데 큰교회처럼 예배인도하는게 어색해요.

2.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MZ세대는 감각적인 매력에 이끌린다.
그들이 교회의 행사와 사역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아름답고 효과적인 디자인에 관심가져야 한다.
아름다운 디자인이 영성을 고양시키지는 못하지만
영성을 위한 행사와 사역에 참여하는
태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眞 선善 미美

'진'과 '선'만 본질이 아니다.
'미'도 본질이다!



Jony Ive
Senior Vice President
Design

조나단 아이브
전 애플 수석 디자인부사장



1998
Apple iMac

© Apple



애플의 DNA는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있다.

- 조나단 아이브



가을

秋 Autumn
[Ga-eu] 사계 중 세번째 계절
생명이 열매맺는 시기



Chapter 1.

We Worship Jesus with our whole heart

최신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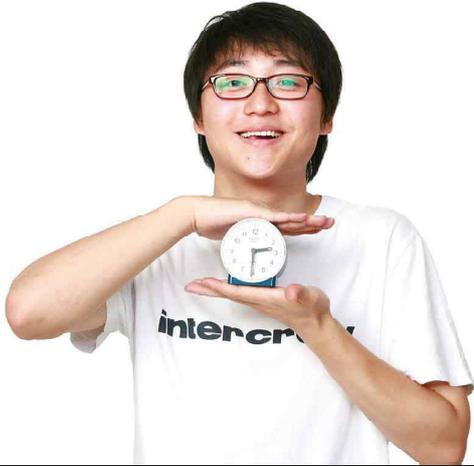


여름수련회 집회모습
가평 칠그림하우스

주일 5부 예배는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병진이의 예배시간은
2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 정해 놓은 시간보다
더욱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정한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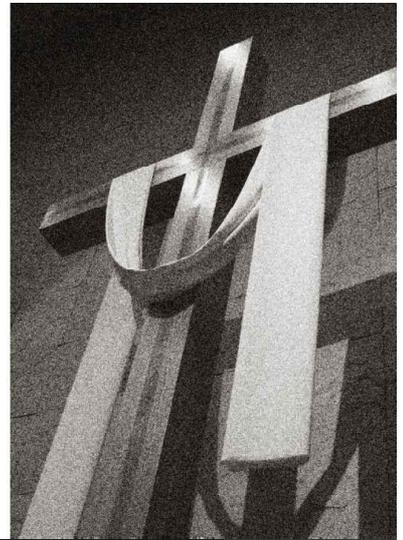


Worship is...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Make my heart become your throne,
Make my heart become your home,
Teach me how to fully die, so I really be alive,

- 찬양 <Alive> 사에서



찬양은 주님과 하나되기 원한다는
가장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찬양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래 실력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실은 실력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고 함께 고백하게 하는 힘은
찬양하는 이의 기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때들을 돌 때 마다
우리 가슴이 뵙니다 우리 영이 기뻐합니다



2009 청년부 여름 해외단기선교
MIRACLE

1차 _ 7. 20 ~ 25
 Philippines Cainta _ 필리핀 카인타 지역
 2차 _ 7. 27 ~ 8.1
 China Simyang _ 중국 심양지역

한 기쁨이 1달러도 벌지 못하는 필리핀의 절대빈민들에게
 박해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중국의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되었음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가난도 박해도 그들의 예배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함이 기적입니다.

주 지역
 1차 _ 영성시간학교 캠프공동체 협력지역
 2차 _ 중국 청소년 교목 및 예배지역



2009. 7. 20 ~ 8. 1 해외단기선교

우리 미호수야 청년부는 필리핀 가인타 지역과
 중국 신양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팀은 20명으로 구성되었고
 필리핀은 한은혜, 중국팀은 허경식이 팀장을 맡았습니다.

Chapter 3.

We try to be like Jesus constantly

예수님 닮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동체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하여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14절



말씀을 먹으며 삽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희망도 먹고, 사랑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매일 먹는 밥과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서 힘이 생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매일 먹어야 합니다
먹으면 든든하고, 만족하고,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밝입니다



Chapter 4.

We are one body in Jesus' Love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8:12-17





2010년에는 각 마을별로 M.T를 떠나보세요.

각 마을별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논해를 나눌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욱 깊은 감동을 느끼실 것입니다.

원쪽사진은 前현우목장이 M.T를 떠나기 전 교회에서의 모습입니다.
아래사진은 목회팀 M.T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되는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기를 날마다 꿈꾸어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여호수아 청년부는 젊은이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일하는 청년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의 삶에 모두가 그리스도께 인도되어 그의 가족이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이르도록 훈련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은사에 따라 교회에서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해 모두가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젊은이들의 영적성장을 위한
여호수아 청년공동체의 고민과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
여호수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원서 12장 1절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코로나 대응사역 사례

김영석
배화여자대학교 교목



1

온라인 주보



2

온라인 성찬



3

손으로 묵상



1

온라인 주보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보를 도입하였습니다.

예배순서, 지난 설교보기, 속회링크, 광고 등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1

온라인 주보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보를 도입하였습니다.

예배순서, 지난 설교보기, 속회링크, 광고 등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2

온라인 성찬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서의 성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편차가 생길 것 같고,**
기성품을 구매하자니 성찬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
성찬기를 **정성껏 제작**하여 가정마다 나눠주었습니다.



2

온라인 성찬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서의 성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편차가 생길 것 같고,**
기성품을 구매하자니 성찬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
성찬기를 **정성껏 제작**하여 가정마다 나눠주었습니다.



3

손으로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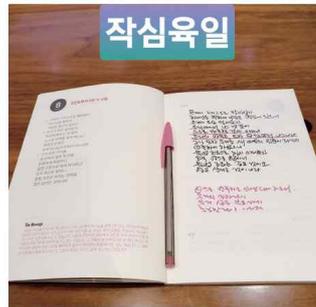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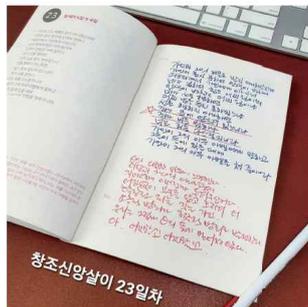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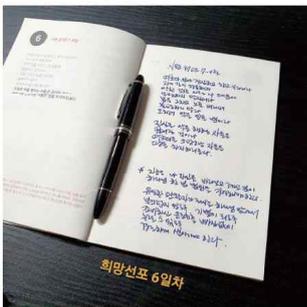
손으로 말씀을 쓰는 묵상집을 만들어
하루하루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말씀을 직접 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과 함께 견디는 시간입니다.



3

손으로 묵상

손으로 말씀을 쓰는 묵상집을 만들어
하루하루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말씀을 직접 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과 함께 견디는 시간입니다.



4

기타사역

온라인 속회 - 줌 활용하여 분기별로 주제를 정하여 운영
 온라인 마켓 -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온라인 플라마켓 진행
 온라인 집회 - 어노인팅과 함께 온라인 찬양집회를 기획
 온라인 예배 1주년 기념예배를 준비중



3. 균형이 있는 교회

- 1) 보여주는 것과 참여하는 것의 균형
- 2) 자극과 목상의 균형
- 3) 전통과 현대의 균형
- 4) 복잡함과 단순함의 균형
- 5) 진지함과 유쾌함의 균형

_ Thomas G. Long, [Beyond the Worship War } 중에서



말씀과 찬양의 균형 2021년 대림절 찬양예배



보여주는 것과 참여하는 것의 균형 2022년 기획팀 헌신예배



비장함과 유쾌함의 균형 2022년 예배와 수련회

4. 복음이 있는 교회

불편함을 제거하고, 아름다움에 관심갖고,
균형있는 예배와 사역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어는 바뀌어야 한다.
종교적인 언어보다는 일상적인 언어로 전해야 한다.
강력한 선포도 있어야 하지만 따뜻한 설득이 우선이다.

1. 감성적이다.

모던적 이성주의에 반발하는 감성적인 세대

2. 훈계보다 설득을 원한다.

권위를 평가하고 권위에 반발하는 주관적 세대

3.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며 자극에 반응하는 세대

4. 길게 생각하기에 서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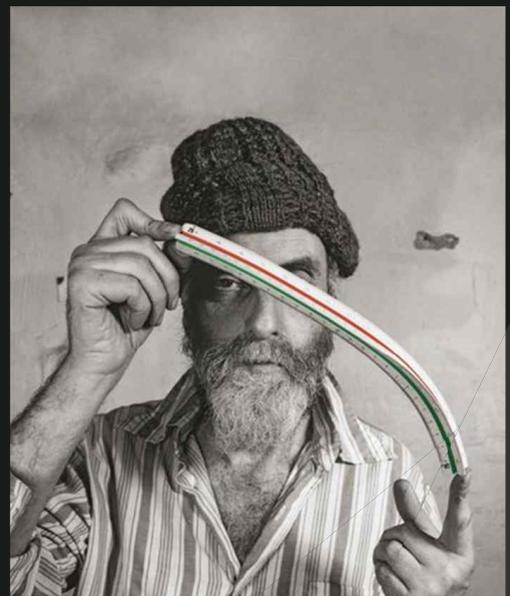
꼬리를 무는 논리와 스피드가 필요한 세대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창조적이라면
그는 보다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훈데르트 바서
오스트리아 건축가



다중 전환 시대와 미래교회

강대중(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올해 수포교포럼의 주제어인 다중 전환 시대는 전환이 여러 겹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현 시대를 표상한다. 김은혜 교수님께서 생태와 기술의 관점에서 시대의 전환을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교회와 목회에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의 전환을 지구 구원이라는 핵심어로 제시해 주셨다. 발표에 공감하며 울림이 있는 논의가 한국 교계에서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한국 사회의 빛이 되는 역할을 교회가 항상 감당해왔다는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김영석 목사님께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일"이라 칭하신 바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은혜 교수님, 김영석 목사님의 발표에 기대어 전환의 시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엿볼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아직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는 디지털 사회경제 전환이 매우 거세고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 방식이 달라졌다. 좋은 학교일수록 온라인 수업의 질이 좋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교육의 질을 극대화한다. 좋은 직장일수록 재택근무의 여건이 좋다. 디지털 기술이 일터를 바꾼다. 나의 앞 세대가 장바구니와 검정비닐이 끊어질까 걱정하며 재래시장에 다니던 생활을 기억에 간직하는 것처럼 나는 마트에서 잔뜩 산 물건을 박스에 포장해 자동차 트렁크에 싣는 일을 이제 거의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 온라인 쇼핑을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한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거의 대부분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하는 새로운 기술과 공생하는 근본적인 삶의 전환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아내고 있다. 물론 예배의 풍경도 달라졌다.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였던 구약의 역사를 어디까지 거슬러 오를 지는 저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신약의 역사는 이제 2천년 남짓이다. 우리는 그 신약의 전통 끝자락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얼마전 태풍 힌남노가 큰 피해를 주었다.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한 최초의 초강력 태풍이었던 힌남노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세력이 더 강해졌다. 바닷물의 온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인데, 동중국해의 수온은 지난 40년 동안 1.5도 더 높아졌다고 한다. 기후학자들은 이제 "바닷물이 절절 끓는다"고도 한다. 신약의 역사인 지난 2000년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기후 위기가 최근 100년 동안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다 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유를 벗어나야 한다는 이른바 포스트-휴먼 시대 논의가 생겨났고, 김은혜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생태사물신학도 등장했다. 해와 달이 이상해진 것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달라진 것도,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겨난 것도, 하나님께서 달라졌기 때문도 아니다. 인간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흐름을 바꾸는 데는, 특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해저 2000미터의 심층 바다의 온도 상승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100년, 어쩌면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한다.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 지, 아니면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지 모르나, 지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런 전환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생활에서의 전환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전통을 중시하는 종교에서 일반 신도가 삶에서 전환을 실천,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영어로는 trans-form으로 표현하는 전환은 form, 즉 형태가 차원을 달리하는 변화를 뜻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화가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이나 신앙

의 선배들은 이런 전환을 회심과 구원의 사건으로 표현해 왔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런 전환으로 연쇄적인 고리를 만드는 일종의 자기 복제에 열중해왔다. 루터의 회심,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우리가 여전히 기념하는 이유이다. 그 전환 경험의 핵심을 보존하고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서이다. 종교개혁을 re-formation이라고 한다. 형태를 다시 한다는 뜻이다. 개신교(改新教)는 다시 한다, 즉 다시 새롭다는 뜻이다. 그 전환의 경험을 다시 새롭게 각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에서 전환은 계승이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계승은 조상과 선임자의 것을 물려받고 이어간다는 의미이다. 어쩌면 이 전환과 계승의 잇닿아 있음이 신앙생활의 비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쯤에서 묻게 된다. 한국 교회는 혹시 200년 전에 선교로 전해 받은 어떤 것만을 세대를 거치며 반복해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최근 세대에 이르러 이 반복의 횟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년이야 길게 보아 일고여덟 세대에 불과하니 생활 가까운 곳에서 이 반복은 여전히 잘 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지킬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며 안도하고, 그 이어진 반복을 칭송하며 반복의 줄어드는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자기를 둘러싼 세계의 거대한 전환을 모른 채 세대 복제의 반복 만을 고집하다가 서서히 약해지고 그러다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급속히 도태되어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는 함께 눈치 채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신약의 시작 시대나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와 비견할 만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격렬한 거대한 전환, 래디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김은혜 교수님이 전해 주신 공존coexistence, 더불어 존재한다. 공생symbiosis, 같이 산다. 공산symposium, 함께 만든다는 세 가지 성찰은 이 점에서 깊이 새겨볼 가치가 있다. 더불어 같이 함게는 일부 인간끼리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자만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정치적, 종교적 권세 있는 사람만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백인만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좋은 가문만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지 않았다. 인간만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기술을, 문명을,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만들지 않는다.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감염병의 전지구적 장기 대유행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공존, 공생, 공산은 교회 내 세대 성찰에 뜻하는 바도 크다. 선대가 후대를 낳고 길렀지만 그 후대는 선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선대는 후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을 한다. 많은 경우 교육은 선대가 살고 있는 좋은 삶을 후대도 이어 살아야한다고, 선대가 살아내지 못했고,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 좋은 삶까지 후대는 덧붙여 살아내야 한다고 선대가 후대에게 체계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이 요구와 설득은 조직적 차원에서 보면 수평적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김은혜 교수님이 전하신 더불어 존재하고 같이 살고 함게 만드는 것은 수평적 관계 맺음을 전제한다. 수평은 높낮이가 다르다는 뜻이다. 높은 쪽이 낮아지거나, 낮은 쪽이 높아져야 수평이 된다. 선대와 후대의 교육적 관계 맺음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선대가 높고 후대가 낮으며, 마치 물이 흐르는 이치와 같이 높은 선대로부터 낮은 후대로 흘러 내리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왔다. 2000년 신약의 역사, 아니 인류 문명의 역사가 그러했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징후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목도된다. 과거 씨를 뿌리던 아버지는 농부가 될 자식에게 농사의 이치를 흘러 내려 수평을 만들었다. 그런데, 키오스크 주문만 되는 상점에서 대학을 졸업한 70대는 이제 10대 고등학생에게 자기를 높이는 기술을 흘러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알파벳 숫자만큼 다양한 세대가 더불어 존재하고, 같이 살며, 함께 신앙을 만드는 교회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실천과 일면 위험해 보이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러할 것이다. 흘러주기의 방향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김영석 목사님께서 발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vs 어디까지 가야할까?"라는 질문을 대립적으로 제기하셨다. 흘러주기의 복잡성과 다양성에서 비롯된 질문이라 생각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땅 끝까지"라고 하셨다고 반복해서 배웠다. 어떻게? 사도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주 무모하게 죽음을 불사하며 접근했다고 반복해서 배웠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한 끝 자락으로 삼는 2000년 신약의 역사 다른 끝자락을 사는 우리 대부분은 이제 그 "땅 끝"이 인디언이 살던 아메리카 대륙이나, 검은 땅 아프리카나, 동방의 한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어떤 세대가 둥근 지구에 땅 끝을 정했던 것은 인간의 편견 혹은 상대적 오만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이제 다른 어떤 세대는 지구가 떠 있는 우주가 무한대로 팽창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며 산다. 어디까지, 어떻게 교회는 포용할 것인가?

두 분의 발제를 읽으며 다중 전환의 시대, 교회는 신앙의 실천을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라는 정답 없는 질문에 마주 서게 되었다. 가르치고 배우는 현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육학 전공자로 늘 강조하는 생각이 있다. 정답 없는 질문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연대가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같이, 함께 오늘의 한국 교회가 두 발제자의 질문을 나누길 기대한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살림을 도모하는 길일 것이다.

미래세대가 그리는 교회에 대한 논찬

홍민기(명지대 교목)

이번 수표교포럼의 논찬을 부탁받고 교회로부터 전달받은 PPT를 보면서 들었던 것은 발표자가 평소에 교회의 미래적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이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발표자는 발표 PPT 가운데 “대학교에서 20대 학생들을 만나고, 대학교회에서 30, 40대 청장년을 만난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번 발표가 연구실이라는 상아탑 안에서 사색을 통해 구현된 소위 형이상학적 사고가 아닌, 현장의 실제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발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발표 자료를 보면서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발표자료를 살펴보는 내내 걱정도 앞섰습니다. 이는 발표내용에 부동의하고 반대한다는 차원이 아닌, 발표자의 발표의도를 논찬자인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발표자의 발표양식이 일반 논문과 같은 형식이 아닌, 최대한 간결하고 정제된 양식을 취하는 PPT이기에 비롯된 제 나름의 걱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혹여나 제가 발표자의 의도와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초점에서 벗어난 논찬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에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와 같은 부득이한 한계를 전제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논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두서 없이 몇 가지 의견을 밝히는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앞부분에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추측하기에 발표자가 오늘날의 상황과 시대정신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전제로 사용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발표자가 말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시대인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2. 발표자는 MZ세대를 ‘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대 ② 궁극적 가치실현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거부하는 세대’라 정의하였습니다. 듣기론 MZ세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집니다만, MZ세대의 긍정적인 면도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3.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VS 어디까지 가야할까?”이 표현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논찬자가 받은 느낌은 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야할까’는 MZ세대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의 관점이 농후한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발제자는 후자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하는 고민이 드러나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삶의 전환(구원)’을 이루도록(빌2:12) 도와야 한다. - “그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부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정리된 발표자의 입장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4. 불편함이 없는 교회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불편해 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해 가는 것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예배 시설, 분위기, 환경 등과 관련한 불편요소 제거를 통해 예배의 영성은 더욱 풍성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성경과 찬송 등 예배에서 사용하는 표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MZ세대에게는 기존의 성경과 찬송이 이른바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개역개정판 성경은 MZ세대에게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옛 말투의 한글성경 번역은 MZ세대에게 상당한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의 예를 하나 들자면, 채플에서 앞부분은 늘 가요로 시작(가사의 건전함이 담긴 동시에 학생들이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곡)합니다. 이번 학기 어느 날에는 가요의 전이해가 없는 강사가 와서 가요를 듣더니 하는 말이 “최신 CCM인지 가사가 참 깊이 있고 은혜롭네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때때로 채플 첫 순서의 가요를 듣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며 MZ세대는 불편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니 학생들은 종교를 떠나 기독교 채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해당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효과적인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설명은 본 발표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수렴의 효과적 방법론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과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매학기말 설문문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여기에는 강사 추천, 채플의 만족도 등의 항목 등이 담겨 있고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들 수 있기도 합니다. 익명성 속의 평가는 때론 우리 자신을 후벼파는 비판이 담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의 역할도 합니다.

5.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와 관련한 발표자료 내용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발표자가 애플의 전 최고디자인책임자(CDO)인 조너선 아이브(Jonathan Ive)의 "애플의 DNA는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MZ세대는 감각적인 매력에 이끌린다고 본 것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美'의 추구가 시간과 노력은 둘째 치고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애플을 예로 들었으니 논찬자도 이를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애플제품을 구비하려면 기본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며 그럴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점에 비추어 볼 때,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에 국한될 여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자립(비전)교회가 미래세대를 그리기엔 이 부분은 일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6. MZ세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했는데, 그렇다 보니 여타 세대와의 연결고리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듯합니다. 물론 '3번 균형이 있는 교회'에 관한 부분 가운데 '3) 전통과 현대의 균형'이라는 항목을 제시했는데, PPT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MZ세대가 여타 세대와의 관계 연결고리를 맺지 못할 때 한 세대는 풍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새로운 세대가 치고 올라오면, MZ세대는 결국 갈라파고스 신드롬(Galapagos Syndrome)에 얽매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함께 선행되지 않는다면 MZ세대는 언젠가 시간이 흐른 뒤 결국 고립된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한 발표자의 고민과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혹 방법론에 관한 나름의 해결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MZ세대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한 바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준 발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의 논찬이 혹 발표자의 의도와 관점을 잘못 이해하여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수표교포럼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나아갈 교회의 미래를 그려보고 전망하는데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